

#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 뉴스** 7가지 유형의 자율주행차를 시범 운행하며 상업화 준비

**문화·관광** - 100년 전통의 포틀랜드 장미 축제와 미 해군 함대 주간

**산업·경제** - 10분 급속 충전 배터리에 발맞춘 전기차 충전기 보급

**사회·복지** -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걷기 행사

**환경·안전** - 산림환경 분야 인식 개선하는 그린 인턴십 프로그램

**도시계획·주택** - 걷기 좋고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만들기

##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 〈북아메리카〉

#### 미국

매디슨·시카고	조민서
샌프란시스코	송태수
시카고	강기향
포틀랜드	김규리
	김현철
하와이	임지연
휴스턴	이경선

#### 캐나다

에드먼턴	장지훈
토론토	고한나

### 〈아프리카〉

#### 케냐

나이로비	한 울
------	-----

### 〈오세아니아〉

####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황현정
-----	-----

### 〈아시아〉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	-----

#### 싱가포르

싱가포르	이지은
------	-----

#### 인도

뉴델리	박원빈
	박효택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박재현
------	-----

#### 일본

도야마	서유환
도쿄	김영준

#### 중국

광저우	손지현
베이징	정민욱
충칭	모종혁

### 〈유럽〉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장한빛
-------	-----

#### 독일

베를린	홍남명
슈투트가르트	정운주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 스페인

바르셀로나	진광선
-------	-----

#### 이탈리아

로마	서동화
피렌체	김예름

#### 프랑스

파리	김나래
	정연주

## 7가지 유형의 자율주행차를 시범 운행하며 상업화 준비

중국 충칭시 / 도시교통

충칭시 하이테크구(高新區) 정부는 8월 10일부터 7가지 유형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범 운행하여, 8월 말 정식 상업화를 위한 주행 사업을 진행. 이를 위해 하이테크구는 자율주행차 운행 시범 구역을 건설하고, 구역 내 도로에는 온라인 클라우드 통합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자율주행차를 시범 운행하고 상업화에 나설 수 있는 배경에는 관련 정책과 법률을 마련하고 자율주행차의 상업화를 지속 추진해 온 충칭시 정부의 노력이 있었음

### 상업화 목표로 7가지 유형의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 8월 10일부터 충칭시 하이테크구에서 7가지 유형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범 운행
  - 시범 운행하는 자율주행차는 ▶자율주행 통근버스, ▶저속 무인판매차<sup>1)</sup>, ▶저속 무인배송차<sup>2)</sup>, ▶저속 무인보안순찰차, ▶저속 무인청소차 등
    - 자율주행 통근버스는 도로의 실시간 상황에 따라 가속과 감속, 차선 변경, 정지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 그 이유는 온라인 클라우드로 일체화된 지능형 인공 지능(AI) 기술의 교통 솔루션을 채택했기 때문임
    - 지능형 인공지능 기술의 교통 솔루션 원리: 자율주행 통근버스 주행 도로 양쪽의 밀리미터파 자동차 레이더(millimeterwave car radar)<sup>3)</sup>와 카메라 및 기타 시설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통합 클라우드에 보내면, 통합 클라우드 시스템이 계산하여 자율주행 통근버스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전 제안을 전송하여 사고 요인이나 비상사태를 미리 방지토록 함
- 충칭시 하이테크구 정부는 다양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범 운행하여 경험을 쌓고 안전성을 확보한 뒤에 8월 말 정식 상업화하려는 계획에 따라 7가지 유형의 자율주행차 주행 사업 진행

1) '저속 무인판매차(低速無人售賣車)'는 주인이 밀집해서 사는 주택가를 돌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판매하는 자율주행차로, 판매 과정은 인공지능 기술에 따라 자동화되어 처리되고 대금을 결제할 수 있어 판매원이 따로 없음  
 2) '저속 무인배송차(低速無人配送車)'는 주로 단독주택이나 저층 연립주택이 몰려 있는 지역에서 주인이 주문한 택배를 시기술에 따라 배송하는 자율주행차를 가리킴  
 3) '밀리미터파 자동차 레이더(millimeterwave car radar)'는 차량의 운행 지원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달리는 차량에서 100m 정도 주변의 상황을 감지하는 레이더 시스템을 가리킴. 운행 중에 운전자의 시각을 보조하고 충돌 방지, 전후방의 차간거리 및 가드레일 사이 거리의 측정, 자동차의 속도제어 등에 연계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에 연동하여 안전 운행이 이루어지도록 함

- 하이테크구는 이를 위해 자율주행차 운행 시범 구역을 건설하고, 구역 내 도로에는 온라인 클라우드 통합 인프라를 구축하여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고 교통사고나 비상사태까지 대처하는 응용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임
  - 8월 말에는 자율주행차 운행 시범 구역의 1단계 건설을 완료하여 약 50km의 도로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각종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자율주행차의 주행을 도울 온라인 클라우드 제어 플랫폼 마련 예정



[그림] 자율주행 통근버스가 지능형 인공지능 기술의 교통 솔루션에 따라 도로에서 주행하는 방식을 소개한 그림  
(출처: 중국신문넷)

### 정책과 법률을 마련해서 자율주행차 시대를 여는 충칭시

- 충칭시 하이테크구 정부에서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자율주행차를 시범 운행하고 상업화에 나설 수 있는 것은 충칭시 정부가 관련 정책과 법률을 꾸준히 마련했고 현장에서 자율주행차의 상업화를 지속 추진해 왔기 때문
  - 2022년 1월 충칭시의 지방의회격인 충칭시 인민대표대회(人大) 상무위원회는 「충칭시 스마트온라인자동차 도로테스트와 응용관리시행판법」을 통과시켜 시행
    - 하이테크구가 자율주행차 운행 시범 구역을 건설하고, 구역 내 도로에 온라인 클라우드 통합 인프라를 구축하여 자율주행차 주행 사업을 진행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법률적 뒷받침이 있음
  - 2022년 8월 충칭시 용촨(永川)구 정부는 후베이성 우한시가 중국 최초로 자율주행차의 정식 상업운행 서비스 개시를 허가

- 용촨구 정부는 이를 위해 용촨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스마트온라인자동차 선행정책 도로테스트와 응용관리시행판법’을 통과시키고 시행하여, 자율주행 호출차의 상업운행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 관련 내용은 세계도시동향 제534호 ‘중국 최초로 자율주행차의 상업운행서비스 허가’에서 소개)
- 2022년 9월 충칭시 정부는 ‘2022~2025년 충칭시 자율주행 및 자동차네트워크혁신 응용행동계획’을 발표
  - 이 정책에 따라 2025년까지 충칭시 내에서 자율주행차 상업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목표를 정하고 추진 중임. 하이테크구의 다양한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과 상업화 추진도 이 정책의 일환

<http://www.chinanews.com.cn/cj/shipin/cns/2023/08-12/news967332.shtml>

<http://news.qq.com/qita/202308/111282513.html>

<https://www.21jingji.com/article/20230522/herald/3ea14527c84349b3c9454f88d7e1fd43.html>

[https://www.cq.gov.cn/zwgk/zfxxgkml/szfwj/qtgw/202210/t20221008\\_11168404.html](https://www.cq.gov.cn/zwgk/zfxxgkml/szfwj/qtgw/202210/t20221008_11168404.html)

[https://www.cq.gov.cn/zwgk/zfxxgkml/szfwj/zfgz/zfgz/202201/t20220129\\_10364111.html](https://www.cq.gov.cn/zwgk/zfxxgkml/szfwj/zfgz/zfgz/202201/t20220129_10364111.html)

---

모종혁 통신원, jhmo71@naver.com

# 100년 전통의 포틀랜드 장미 축제와 미 해군 함대 주간

미국 포틀랜드시 / 문화·관광

로즈 시티(Rose City)라는 공식 별칭을 가진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시는 장미의 계절 5월과 6월에 도심부를 흐르는 윌래밋강(Willamette River) 수변공원에서 매년 포틀랜드 장미 축제가 진행됨. 이 기간에 미 함대 주간(Fleet Week)이 포함되어 매년 미 해군의 함정들이 포틀랜드 윌래밋강 변에 정박, 일반 시민이 관람할 기회를 제공. 올해 미 해군 및 미 해안경비대를 비롯하여 캐나다 왕립해군이 함께 방문

## 행사 배경

- 군사력 홍보 및 해군 사기 증진
  - 1,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자국의 해군 군사력 증대를 홍보하고, 해군의 사기 증진 위해 백 년 넘는 기간 동안 축제 형식의 미 해군 함대 주간 개최
  - 미국 내 선별된 15개 내외의 도시에서 매년 다른 함정이 정박하여 군사력을 홍보하고 그들의 해양 영토 수호 서비스를 선보임
- 포틀랜드의 대표적인 연례행사
  - 1907년 시작된 포틀랜드 대표 연례행사인 장미 축제에는 다양한 이벤트가 개최되며, 아울러 미 해군 함대 주간에 포함되어 시를 관통하는 윌래밋강 변에 미 해군 함정들이 정박
  - 포틀랜드는 샌프란시스코, 뉴욕, 시애틀 등과 함께 미 해군 함대 주간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도시

## 주요 내용

- 정박 함대 관람
  - 포틀랜드 장미 축제 기간 내 포틀랜드 윌래밋강의 톰 맥콜 수변 공원(Tom McCall Waterfront Park)은 미 해군의 예우 방문 기항지. 올해 미 해군 및 미 해안경비대를 비롯하여 캐나다 왕립해군이 정박. 일반 시민은 신분 검사와 짐 검사를 거친 후 관계자 인솔하에 선체 관람
- 최신 해양 영토 수호 역량 퍼포먼스
  - 미 함대 주간에 포함되는 도시마다 다른 퍼포먼스를 선보이는데, 올해 포틀랜드에

서는 미 해안경비대 해난 구조 퍼포먼스 선보임

○ 해군의 도심 관광

- 미 해군 함대 주간은 해군의 역할을 시민에게 선보일 뿐 아니라 해군 장병들 사기 증진에 도움. 특히 포틀랜드는 장미 축제 기간에 해군 함정이 정박해 해군에게 시민과 함께 축제 즐기며 도심 관광할 기회 제공. 이에 시는 낙후된 도심 지역 거리 정비에 힘쓰는 계기가 됨
  - 예복 입은 미 해군 병사들은 포틀랜드의 새로운 공유 교통수단인 라임(Lime)의 전동킥보드(e-scooter)와 나이키(Nike)의 공유자전거(Biketown PDX)를 이용해 도심 관광



[그림] 포틀랜드 월래밧강에 정박한 미 해군, 미 해안경비대, 캐나다 왕립해군 함대들의 모습  
(출처: 필자 직접 촬영)

## 행사의 의미

○ 군사력 홍보와 교육의 장

- 일반 시민이 해군 복무 중요성과 이들에 대한 투자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의 장. 해군의 정기적 활동 볼 수 없는 도시에서 이들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기회

○ 축제와 거리 재정비

- 축제 전 도심 상권의 상인과 시 정부가 협동해 거리 재정비. 겨우내 월 20일가량 비가 오는 포틀랜드의 추운 우기 동안 침체한 상권 살리는 기회로 삼음

<https://www.rosefestival.org/>

<https://portlandrosesociety.org/>

<https://outreach.navy.mil/Navy-Weeks/>

<https://www.travelchannel.com/interests/history/articles/us-fleet-week-events>

<https://www.rosefestival.org/events/2023/fleet-week2>

---

김규리 통신원, kyuri@pdx.edu

## 10분 급속 충전 배터리에 발맞춘 전기차 충전기 보급

중국 선전시 / 산업·경제

8월 16일 세계 1위의 전기차 배터리업체인 CATL이 10분 급속 충전으로 400km를 달릴 수 있는 새 LFP 배터리 제품 ‘선싱’을 공개. 선싱은 세계 최초의 4C 급속 충전 LFP 배터리로, NCM 배터리가 가진 모든 약점을 극복한 제품. 선전시 정부는 7월 초 세계 최초로 4C 급속 충전이 가능한 충전기를 대량 보급해서 2025년까지 ‘급속 충전의 도시’로 발돋움하겠다고 발표, 중국 배터리업체들과 보조를 맞추어 글로벌 급속 충전 표준규격 경쟁에서 앞서가고 있음

### 급속 충전해 주행거리를 대폭 늘린 배터리 ‘선싱’

- 8월 16일 중국 1위의 전기자동차 배터리업체인 닝더(寧德, 영문명 ‘CATL’)는 신제품 설명회를 개최하여 새 LFP<sup>1)</sup> 배터리 제품인 ‘선싱(神行, Shenxing)’을 공개
  - CATL는 선싱이 10분 급속 충전으로 400km를 달릴 수 있고, 15분 동안 완전히 충전하면 최대 주행거리가 약 700km에 달한다고 발표. 선싱은 중국어로 ‘신과 같은 움직임’이라는 뜻으로 매우 빠르게 충전하는 배터리를 의미
    - CATL는 올해 말부터 선싱의 양산을 시작해서 빠르면 2024년 1분기(1~3월) 시장에 선보인다는 계획
  - 그동안 LFP 배터리는 수명이 길고 가격은 저렴하며 제작하기 쉬운 장점은 있지만, 무겁고 고출력을 내지 못해 주행거리가 짧은 단점이 있어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그리 주목받지 못함
    - 하지만 CATL의 선싱은 짧은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제품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음
  - LFP 배터리에 대척되는 제품은 NCM<sup>2)</sup> 배터리인데 고밀도 설계가 가능해서 상대적으로 가볍고 고출력에 적합해서 주행거리가 긴 장점이 있으나, 희귀광물을 사용하여 가격이 비싸고 수명은 상대적으로 짧은 단점이 있음
    - 그동안 NCM 배터리는 높은 기술력을 가진 한국 배터리 기업이 주도하고, LFP 배터리는 중국 배터리 기업이 주도해 옴

1) ‘LFP’는 Lithium iron phosphate의 약칭으로 리튬·철·인산을 원료로 섞어 양극재를 만든 삼원계 배터리를 가리킴

2) ‘NMC’는 Lithium nickel manganese cobalt oxides의 약칭으로 니켈·코발트·망간을 원료로 섞어 양극재를 만든 삼원계 배터리를 가리킴

- CATL는 글로벌시장 점유율에도 세계 1위의 전기차 배터리 기업
  -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총사용량은 약 304.3GWh(기가와트)로, 2022년 같은 기간보다 50.1% 증가함. CATL는 지난해 동기 대비 56.2% 성장한 112GWh의 사용량 달성으로 36.8%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며 세계 1위를 차지함
    - LG에너지솔루션은 50.3% 증가한 44.1GWh의 사용량으로 14.5%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여 세계 3위였고, SK온은 16.1% 증가한 15.9GWh의 사용량으로 5.2%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여 세계 5위였으며, 삼성SDI는 28.2% 증가한 12.6GWh의 사용량으로 4.1%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여 세계 7위 기록



[그림] 신제품 설명회에서 새 전기차 배터리 '선싱'을 소개하는 닝더의 자동차 부문 사장 (출처: 시장관찰보)

#### 4C 급속 충전기의 보급 사업을 발표한 선전시

- 중국 전체 도시 중 지역내총생산(GRDP)이 3위인 광둥성 선전시 정부는 7월 초 세계 최초로 4C 급속 충전이 가능한 충전기를 대량 보급해서 2025년까지 '급속 충전의 도시(超充之城)'로 발돋움하겠다고 발표
  - CATL의 선싱은 세계 최초의 4C 급속 충전 LFP 배터리임. 여기서 '레이트'는 충전 및 방전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배터리 용량을 1시간에 완전히 충전 또는 방전할 수 있는 전류의 크기가 '1C'임. 1C는 용량 50kWh(킬로와트)급 배터리를 출력 50kWh로 충전할 수 있음

- 따라서 '4C'는 200kWh의 고출력으로 충전할 수 있다는 의미임. 그동안 LFP 배터리는 1~1.5C를 넘어 충전하면 배터리의 음극에 금속리튬이 누출되어 배터리가 열화하거나 파괴되어 버리기 일쑤였는데, CATL가 이런 LFP 배터리의 약점을 완전히 극복함
- 선전시는 CATL의 선싱 개발 소식을 미리 알았다는 듯이, 세계 최초로 4C 급속 충전이 가능한 충전기를 대량 보급할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비한 점이 주목됨
  - 선전시는 128만 7,000대의 전기차를 판매하여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20.9%의 시장 점유율로 세계 1위를 차지한 비야디(比亞迪, 영문명 'BYD')의 본사와 공장이 소재한 도시임. BYD는 중국 최초로 전기차 배터리를 양산한 업체이기도 해서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시장 점유율 16.1%로 사상 최초로 LG에너지솔루션을 제치고 세계 2위로 올랐음
- 선전시가 CATL, BYD와 협력하여 세계 최초로 4C 급속 충전이 가능한 충전기를 대량 보급하면,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의 급속 충전 표준규격을 정하는 데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할 전망
  - 현재 4C 급속 충전 표준규격을 두고 한국·미국·유럽의 CCS, 일본의 CHAdeMO, 중국의 GB/T, 테슬라의 독자규격 등이 겨루고 있는데, 중국은 지방정부인 선전시가 민간업체인 CATL, BYD 등과 협력하여 세계 최초로 4C 급속 충전기 보급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기에 글로벌 급속 충전 표준규격 경쟁에서 한참 앞서게 됨
    - 최근 수년 동안 중국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는 이유는 배터리의 원료 확보부터 급속 충전기의 보급까지 전 세계에서 독보적인 전기차 산업 클러스터와 생태계를 갖춘 덕분임

<https://www.katech.re.kr/page/07090450-89fd-4a3f-8373-ee74cbb3e738>

<https://baijiahao.baidu.com/s?id=1774526330628763193>

<http://cn.chinadaily.com.cn/a/202308/17/WS64dd981aa3109d7585e49949.html>

<https://www.pcauto.com.cn/hj/article/2111227.html>

[https://www.sohu.com/a/695142705\\_121480421](https://www.sohu.com/a/695142705_121480421)

#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걷기 행사

말레이시아 페낭주 / 사회·복지

---

말레이시아 페낭주의 공영버스 라피드 페낭(Rapid Penang)은 올해 운행 16주년을 기념해 대중교통 이용을 환기하고 시민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걷기 행사 라피드 페낭 펀 워크(Rapid Penang Fun Walk)를 개최

---

## 걷기 행사 라피드 페낭 펀 워크

- 목적
  - 버스 운행 구간을 직접 걸으며 대중교통 이용 의지를 함양하고 자동차 때문에 발생하는 대기오염·교통혼잡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
  - 운행 16주년을 기념해 라피드 페낭 임직원 및 관계자는 주민들과 친밀감을 높이고 공영버스 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 주최는 라피드 페낭
  - 라피드 페낭(Rapid Penang)은 말레이시아 재무부가 100% 지분을 소유한 프라사라나 말레이시아(Prasarana Malaysia) 산하 기업
    - 프라사라나 말레이시아는 2004년부터 쿠알라룸푸르시에 라피드 KL(Rapid KL)을, 2007년부터 페낭주에 라피드 페낭 버스(Rapid Penang Bus)를 운영
    - 수상 수송 수단인 페리(Ferry)를 제외한 페낭주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2020년 기준 56개 노선 운행

## 행사 주요 내용

- 행사 세부 일정
  - 2023년 8월 19일 오전 7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도시에 등재된 조지타운(George Town) 구간을 중심으로 걷기 행사 진행
    - 새롭게 시도되는 걷기 행사로 고고학 공원이 위치한 시아보이를 시작으로, 1800년대 건축물이 있는 비치 스트리트 등 조지타운 거리를 경험할 수 있음
  - 버스 운행 구간을 천천히 걸을 수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
  - 올해는 참가비 50링깃(약 15,000원)으로 사전 등록 필수이며 300~400명 참여

- 다채로운 행사 진행
  - 각종 먹거리와 즐길 거리 제공
    - 구간 곳곳에서 보리아(Boria) 등 전통문화공연, 드럼 공연, 춤 공연, 무료 헤나(henna)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아이스크림 500개, 음료 100개 무료 제공
  - 참가자의 안전 및 만족감을 높인 행사 마련
    - 열사병, 골절 등 위급 상황에 대비해 의료진이 상시 대기
    - 참가자의 성취도 향상을 위해 기념 티셔츠, 메달, 가방 제공
  -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 마련
    - 베스트 드레스 선발대회 및 시상식 등의 부대행사 개최
    - 자전거, 가전제품 등 상품 20여 개를 상품으로 증정하는 경품 행사 진행

## 행사 기대 효과

- 라피드 페낭 인식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 행사를 통해 주민과의 접점을 늘려 불만을 접수하고 라피드 페낭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며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
    - 기존 주민들의 불만인 전자결제 시스템 구축 필요성, 페리 터미널 접근성 개선 문제, 교통체증에 따른 운행 시간 지연 등을 접수
  - 자동차 전용 공간이자 라피드 페낭 운행 노선을 직접 걸으며 대중교통 이용에 공감하는 시간 마련
- 걷기 행사로 주민 건강증진 효과
  - 말레이시아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걷지 않는 국가
    - 2017년 기준 스탠포드 대학(Stanford University)이 111개국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걷지 않는 국가 3위
    - 말레이시아 국민의 하루 평균 걸음 수는 3,963걸음으로 이는 태국(4,764걸음), 싱가포르(5,674걸음) 등 비슷한 기후의 인근 국가와 비교할 때 낮은 수치
    - 걷기 행사를 통해 남녀노소가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
- 어린이 비만 및 성인 당뇨병 예방 효과
  -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2019년 시행한 국민건강 및 이환율 조사(National Health and Morbidity Survey, NHMS)에 따르면 17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의 14.8%가 비만으로 집계
    - 이는 2011년 대비 6.1% 증가한 수치로 2025년에는 취약 청소년 165만 명이

과체중 또는 비만일 것으로 집계

- 국민건강 및 이환율 조사(NHMS) 결과 말레이시아 인구의 60% 이상이 당뇨,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등 비전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집계
  - 보건부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성인 5명 중 1명은 당뇨병을, 3명 중 1명은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 자동차 통행을 전면 통제하여 도로를 보행자 공간으로 전환함으로써 열악한 도로권 인프라로 걷기 운동이 부족했던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의의가 있음



[사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라피드 페낭 걷기 행사 (출처: Penang Hyper Local)

<https://worldofbuzz.com/malaysia-ranked-the-third-laziest-country-in-stanford-university-study/>

<https://www.malaymail.com/news/malaysia/2023/09/08/teach-them-healthy-habits-early-malaysian-medical-association-chief-says-as-childhood-obesity-rises/89632>

[https://iku.moh.gov.my/images/IKU/Document/REPORT/NHMS2019/Report\\_NHMS2019-NCD\\_v2.pdf](https://iku.moh.gov.my/images/IKU/Document/REPORT/NHMS2019/Report_NHMS2019-NCD_v2.pdf)

<https://penanghyperlocal.com/rapid-penang-celebrates-16th-anniversary-with-a-fun-walk/>

<https://aliran.com/thinking-allowed-online/solve-penang-congestion-with-more-buses-not-expensive-over-head-rail-line>

<https://www.nst.com.my/opinion/letters/2022/04/791111/penang-visit-marred-poor-public-transport-services>

<https://www.liahasty.com/2023/08/rapid-penang-fun-walk-2023.html>

<https://mykepochi.com/rapid-penang-meraikan-ulangtahun-ke-16-dengan-program-fun-walk-2023-meriah-lebih-300-peserta-sertai-rapid-penang-fun-walk-di-georgetown/>

<https://penanghyperlocal.com/rapid-penang-celebrates-16th-anniversary-with-a-fun-walk/>

<https://www.nst.com.my/opinion/letters/2022/08/825031/lets-walk-more-our-neighbours>

---

홍성아 통신문, tjddk4277@gmail.com

## 산림환경 분야 인식 개선하는 그린 인턴십 프로그램

인도 델리 NCT<sup>1)</sup> / 환경·안전

델리 NCT 정부는 지역 청년들의 산림 및 환경 분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도입. 도시 생활을 주로 하는 학생들에게 관심 분야의 일자리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내 산림자원 보존에 긍정적 영향 기대

### 정책적 배경

- 델리 NCT 지역은 도시화에 따른 환경오염 개선과 산림자원 보호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로 일부 개선세와 함께 새로운 정책 역시 지속해서 요구되고 있음
- 인도경제모니터링센터(CMIE)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델리 NCT의 실업률이 20.8%에 달할 만큼 높은 가운데 특히 청년층은 높은 임금과 안정성을 보장받는 공공 분야 일자리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주요 내용

- 델리 NCT 정부의 산림 및 야생동물과(Departmet of Forest and Wildlife) 주도 하에 8월부터 교육기관에 등록된 18세 이상의 관련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산림보호 활동을 위한 그린 인턴십 프로그램이 운영됨
- 지원을 원하는 후보생들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서를 해당 기관 자문 위원회의 검토 아래 참여 지원동기나 정책 아이디어 등을 중점으로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
- 인턴 기간은 프로그램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대 90일 내 수준의 단기간 인턴십으로 개별 성과에 따라 등급이 부여되고 이와 함께 수료증 제공 예정
  - 해당 인턴십은 별도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지만 관련 교통편 및 학습자료 등 업무 관련 일체 비용은 무료로 제공

1) 델리 NCT(National Capital Territory of Delhi)는 올드델리(Old Delhi)와 뉴델리(New Delhi)를 합친 델리 수도직할지역. 뉴델리시가 인도의 수도

- 인턴들을 대상으로 해당 분야의 관리 플랫폼 분야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산림자원과 환경보호 관련한 업무 프로세스의 이해를 돕고자 함
  - 개별 지원자가 산림 보존 또는 관리, 계획 및 모니터링, 야생동물 관리, 법 정책 제시, 인적 자원 관리, 정보기술 서비스, 회계 업무 등 부서별 업무 중에서 관련 또는 관심 있는 직종을 선택하여 지원하고 이를 중점으로 업무를 수행
  - 해당 인턴들에게 업무능력 향상을 꾀할 뿐 아니라 지역 주민으로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도록 하여 실제 도시행정과 정책에 반영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정책 평가

- 그린 인턴십을 통해 지역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공분야 일자리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지역 정책과 관련한 실제적인 역할을 부여
  - 임금을 제공하지 않는 부분은 일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비용의 소모를 보전해 주는 한편 상대적으로 공공분야나 그린잡(green job)<sup>2)</sup> 분야에 관심이 많은 지역 청년들에게 일자리 체험을 제공하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
- 또한 도시 청년들에게 상대적으로 소외된 산림자원 및 야생동물 보호와 환경오염 방지와 관련한 이해와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해당 부처의 기능을 알리는 측면에서 기여할 것이라 예상
- 지역 내 520만 그루 이상의 묘목 식목작업과 도시 농장 활성화 등 지역 주요 정책과 연계하여 복합적으로 진행하며 지역 산림자원 보존에 긍정적 영향 전망



[사진 1] 그린 인턴십 웹사이트 모습  
(출처: 그린 인턴십 웹사이트)



[사진 2] 그린 인턴십 개시 행사 사진  
(출처: 힌두스탄 타임즈)

2) 환경자원과 생태계를 보전하고 재생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총괄적으로 일컫는 용어

<https://internship.eforest.delhi.gov.in/>

<https://www.apeekay.news/delhi-government-announces-green-internship-for-students/>

<https://www.asianatimes.com/delhi-government-launched-internship-for-students/>

<https://www.edexlive.com/news/2023/aug/07/delhi-launches-internship-programme-for-wildlife-enthusiasts-read-details-here-36881.html>

<https://www.hindustantimes.com/cities/delhi-news/delhi-government-launches-new-portal-for-environment-and-forest-internships-101691346615044.html>

<https://www.indianexpress.com/article/education/delhi-govt-launches-internship-programme-for-environment-and-wildlife-enthusiasts-applications-open-internship-eforest-delhi-gov-in-8880474/>

<https://www.theprint.in/india/delhi-govt-launches-internship-programme-for-environment-and-wildlife-enthusiasts/1703139/>

<https://www.thestatesman.com/cities/van-mahotsav-delhi-govt-launches-internship-portal-1503209048.html>

---

박원빈 통신원, samc21@naver.com

# 걷기 좋고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만들기

싱가포르 / 도시계획·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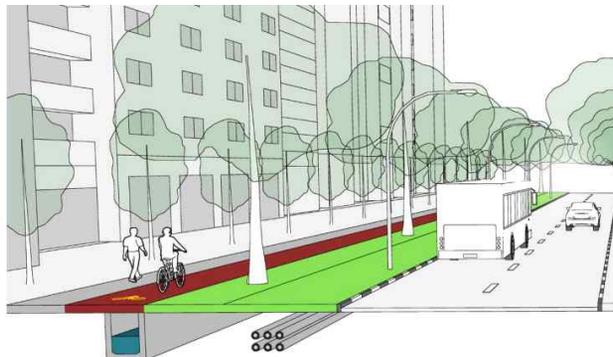
싱가포르는 워킹 앤 사이클링 가이드(Walking and Cycling Design Guide)를 통해 차량, 자전거, 보행자, 녹지를 조화롭게 배치하면서도 안전과 보행 쾌적성을 확보하도록 유도. 이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 녹지 비율 증가, 차량 이용 감소, 탄소제로 도시 실현에 기여

## 배경

- 싱가포르는 2014년 ‘차 없는 도시’를 표방하면서 사람들에게 거리를 돌려주고, 지속 가능한 환경으로 전환할 것을 비전으로 선포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생활’의 일부로서 사람들에게 ‘걷기’와 ‘자전거’ 활용을 촉진하는 전략 수립
  - 안전하고 편리하고 편안하며 즐거운 걷기와 자전거 타기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걷기와 자전거가 통근과 여가에 매력적 대안이 되도록 유도하는 전략
- 싱가포르는 개발업자에게 개발에 앞서 워킹 앤 사이클링 플랜(Walking and Cycling Plan, WCP)을 제출하도록 함. 이에 보행, 자전거, 개인 모빌리티 수단 이용이 편리한 도시 인프라 조성을 위해, 건설업계 및 공공이 참고할 수 있는 설계지침을 마련하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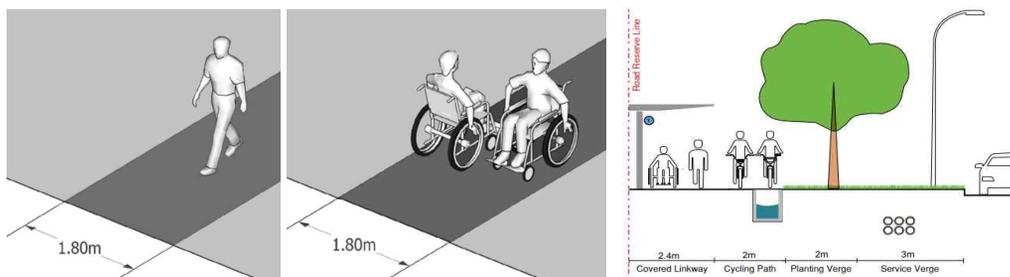
## 싱가포르의 워킹 앤 사이클링 디자인(Walking and Cycling Design) 주요 내용

- 이동 속도 순서대로 보행자용 도로, 자전거용 도로, 차량 도로의 순서로 배치



[그림 1]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녹지, 차량 전용도로의 배치 디자인

- 자전거와 차량용 도로 사이에는 녹지를 배치하여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을 높임과 동시에 나무 그늘 확보로 거리의 쾌적성을 높임
- 목발/휠체어/유모차/반려동물 동반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필요한 최소 폭을 정의
  - 보행로(1.8m), 양방 휠체어(1.8m), 보행자와 휠체어(2.4m), 자전거(2m) 등 쾌적한 환경에 필요한 최소 도로폭을 규정



[그림 2] 쾌적한 보행에 필요한 보행도로, 자전거도로, 녹지 최소 폭 규정

- 날씨와 관계없이 쾌적한 보행 환경조성을 위해 차양막 설치 규정 제시
  - 이동 시 사람들이 걸어가기로 선택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날씨라는 연구 결과를 반영, 비 오는 날에도 비 맞지 않고 쾌적한 도보 이용이 가능한 환경 조성



[그림 3]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 보행자도로에 설치된 차양막

## 시사점

- 지구 온난화와 더불어 열섬 효과 저감, 일사병 방지를 위한 실질적 도시계획 정책
-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여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누리고 자전거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에 참고할 만한 유용한 지침 사례

<https://www.ura.gov.sg/Corporate/Guidelines/-/media/BD725DB201DB496A93569C8072DD9FD0.ashx>

[https://www.lta.gov.sg/content/ltagov/en/industry\\_innovations/industry\\_matters/development\\_construction\\_resources/walking\\_cycling\\_plan.html](https://www.lta.gov.sg/content/ltagov/en/industry_innovations/industry_matters/development_construction_resources/walking_cycling_plan.html)

---

이 지 은 통신원, jieun0441@naver.com

## 세계도시동향 제559호

**발행인** 박형수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3년 9월 11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 개발과 도시 관련 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 도시의 정책 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들이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 송도숙(song@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ISSN 2586-5102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http://www.si.re.kr)